



## I. 勞使紛糾에 따른 賃金調整 展望

- 本院이 最近(8月 24日~26日) 118個 會員企業(製造業)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를 보면 「6.29」이후 紛糾發生業體는 46.6%인 55個社에 달함.
- 紛糾가 妥結된 業體의 賃金調整內譯을 보면 平均 8.9% (基本給 基準)引上과 그 밖에 諸手當, 賞與金 上向調整分을 포함할 경우 總給與引上率은 13.9% 水準에 이르고 있음.
- 그런데 今年度 上半期에 既調整된 定期賃金引上率 9.2%(製造業:經總資料)를 감안하면 今年度 賃金引上率은 20~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上半期 既賃金調整分은 企業의 生産性 向上 등 企業經營與件을 감안, 支拂 가능한 水準에서 決定되었으나 最近 紛糾와 關聯한 罷業·操業中斷 등의 여파로 生産目標蹉跌·輸出不振 그리고 品質低下 등은 곧 Cost push 要因으로 作用, 經營與件을 크게 惡化시켜 結局 生産性向上이 當初 예상보다 低下될 것으로 展望됨.

- 따라서 企業 賃金支拂能力은 既引上分에 더하여 追加引上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어 企業의 賃金支拂財源 調達에 대한 根本的인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表 - 1 > '87年 賃金調整內譯 (製造業)

(單位 : %)

上半期引上率	最近 勞使紛糾에 따른 引上率			總引上率
	基 本 給	賞與金・諸手當	合 計	
9.2	8.9	5.0	13.9	20 ~ 25

## II. 賃金水準의 國際比較

### 1. 韓國·日本·臺灣의 所得水準과 賃金水準

- 1986年 基準 製造業의 月平均給與額(달러表示, 1984年不變價格)은 韓國이 265 달러로서 日本(2,115 달러)의 1/8, 臺灣(368 달러)의 7/10 에 해당하는 水準임.
- 그러나 1人當 國民所得이 2,000 달러에 이룬 年度를 基準으로 보면 韓國이 233 달러(1984年), 日本은 285 달러(1963年), 臺灣은 193 달러(1977年)로서 韓國의 賃金水準은 日本보다 낮지만 臺灣보다는 오히려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음.

<表-2> 1人當 所得水準과 賃金水準

(單位: 달러)

年 度	韓 國		日 本		臺 灣	
	國民所得	月給與額	國民所得	月給與額	國民所得	月給與額
1963	337	259.9	2,155	284.7		
1977	1,831	263.1	9,573	920.7	2,034	193.0
1979	2,186	249.9	11,347	1,224.1	2,489	237.7
1980	1,844	222.2	10,237	1,078.6	2,655	241.0
1982	1,855	214.2	9,254	1,110.1	2,677	267.9
1984	1,999	233.0	9,107	1,153.6	3,065	327.3
1985	2,067	236.1	9,672	1,500.6	2,757	304.1
1986	2,367	265.4	14,573	2,115.0	3,376	367.9

註: 1984年 不變價格 基準

## 2. 韓·日間の賃金隔差原因

- 韓·日間の賃金隔差의 根本的인 原因은 勞動生産性水準의 差異에서 찾을 수 있음. 즉 1985年 日本의 1人當勞動生産性은 28,414 달러인데 비하여 韓國의 경우는 9,222 달러로서 約 3倍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韓國의 勞動生産性水準이 日本에 미치지 못하는 要因은 生産性を 決定하는 勞動裝備率과 設備投資效率이 日本에 비해서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즉 製造業平均으로 比較해 보면 勤勞裝備率(1985年)은 日本이 韓國의 2倍이며 設備投資效率은 日本이 韓國의 1.5倍 水準에 달하고 있음(表-3).

〈表-3〉 韓·日間 勞動生産性·勞動裝備率·設備投資效率 比較  
(製造業平均)

(單位: 韓國에 대한 日本의 倍數)

	1人當附加價值	勞動裝備率	設備投資效率
1980	2.8	1.2	1.6
1981	2.4	1.7	1.6
1982	2.6	1.4	1.3
1983	2.6	1.6	1.6
1984	2.4	1.5	1.6
1985	3.0	2.0	1.5

註: 1) 勞動裝備率 = (有形固定資産 - 建設假計定) / 從業員數  
 設備投資效率 = 附加價值 / (有形固定資産 - 建設假計定) × 100  
 1人當附加價值 (附加價值 / 從業員數)  
 = 勞動裝備率 × 設備投資效率 / 100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7.

〈表 - 4〉 韓・日間 勞働生産性・勞働裝備率・設備投資效率 比較  
(産業別 1980 ~ 1985年 平均)

(單位: 韓國에 대한 日本의 倍數)

	음식료품	섬유·의복·가죽	목재·나무제품	종이인쇄출판	화학물·석유·석탄·고무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	금속제품기계장비
1人當附加價値	1.9	2.4	2.9	2.6	4.5	2.3	2.3	3.1
勞働裝備率	1.3	1.4	1.7	1.8	6.5	1.4	1.3	1.7
設備投資效率	1.3	1.8	1.6	1.4	0.6	1.6	1.7	1.9

- 따라서 生産性向上 → 賃金引上으로 볼때 勞働裝備率 提高를 위해서는 設備改替 및 擴充을 위한 設備投資 擴大가 要求되며 設備投資效率의 向上을 위하여 新技術開發과 導入·活用 및 生産自動化에 보다 企業經營의 焦點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Ⅲ. 賃金調整과 企業의 支拂能力

#### 1. 金利引下와 賃金支拂能力

- 年間 20 ~ 25 % 水準의 賃金引上調整은 正規的인 引上率 水準을 넘어선 하나의 賃金引上 衝擊이므로 勞動生産性 向上, 經營費用 節減 등 正常的인 方法으로서는 이러한 衝擊을 吸收하기 어려울 것임.
- 이러한 충격을 解消하고 企業活動을 持續시키기 위해서는 企業이 創出한 附加價値의 分配를 再調整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要求됨. 즉 創出된 附加價値의 分配에 있어 資本所得 몫을 줄이고 賃金所得 몫을 늘리는 方向으로의 分配調整이 바람직함.
- 資本所得의 몫을 決定하는 결정적 要因은 金利와 企業利潤率인데 1986年 現在 製造業 企業의 他人資本利子率은 12.5 %인데 대하여 自己資本純利益率은 10.9 %임. '86年의 自己資本純利益率은 '85年의 5.8 %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그 水準에 있어서는 銀行金利 (預金金利 10 %)와 비교해 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資本所得을 줄여 賃金引上調整을 위한 支拂能力을 造成하기 위해서는 金利引下가 核心的 課題임. 왜냐하면 金利가 引下됨에 따라 企業利潤率도 同時에 比例的으로 引下調整할 수 있기 때문임.

- 金利를 2%포인트(現在 他人資本利率 12.5%의 16%에 해당) 引下하고 이와 比例해서 自己資本利益率도 16% 減少시킨다면, 즉 企業生産 附加價值中 資本所得 몫을 16% 減縮시킨다면 生産職勤勞者 賃金を 16.3% 引上할 수 있는 財源이 造成될 것으로 推定됨(表-5).
- 企業規模別로는 勞務費引上率이 大企業의 경우 18%, 中小企業의 경우 10.5%로서 中小企業에 있어 金利引下 效果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中小企業이 보다 勞動集約的으로서 勞務費 比重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金融支援 등 追加의 政策配慮가 要求됨.
- 産業別로 보더라도 金利引下에 따른 賃金支拂能力 造成에 있어 産業의 勞動集約度에 따라 差異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賃金調整에 있어서 産業別 特殊性과 支拂能力을 考慮하여야 할 것임.



<表 - 5 >

資本所得의 調整을 통한 資金引上 財源確保의 推定

(單位：%)

區 分		調 整 前		金利 2%포인트 引下 效果			
		他人資本	自己資本	資本所得	勞務費	調 整 後	
		利子率	純利益率	增減率	增減率	他人資本 利子率	自己資本 純利益率
製 造 業 全 體		12.50	10.88	-16.0	+16.32	10.50	9.14
規模 別	大 企 業	12.27	9.69	-16.2	+18.00	10.27	8.14
	中 小 企 業	14.04	17.34	-14.2	+10.52	12.04	14.91
業 種 別	飲 · 食 料 品	14.90	8.90	-13.4	+17.86	12.90	7.74
	纖維 · 衣服 및 가죽	12.68	20.59	-15.8	+12.44	10.68	17.30
	木材 및 나무製品	13.53	-9.38	-14.8	+8.76	11.53	-10.79
	종이 및 印刷出版	13.58	11.31	-14.8	+14.80	11.58	9.61
	化合物 · 石油 · 石炭 고무 및 플라스틱	13.03	14.29	-15.4	+33.48	11.03	12.15
	非金屬鑛物製品	13.10	9.38	-15.2	+17.08	11.10	7.97
	第 1 次 金 屬	9.00	7.71	-22.2	+28.84	7.00	6.01
	組立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	12.61	7.57	-15.8	+12.74	10.61	6.36
	其 他 製 造 業	13.58	19.79	-14.8	+7.74	11.58	16.82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1987.

## 2. 準租稅負擔과 賃金支拂能力

- 1986年 企業이 負擔하는 準租稅는 賣出額對比 1.08% (118個 製造業 簡易調査, 1987.8)로 이는 1985年 0.77%에 비하여 40%의 높은 增加를 보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企業이 非自發的으로 負擔한다고 하는 것이 41.8%에 이르고 있음 (表-6 및 表-7).
- 그런데 日本 通産省資料에 의하면 日本法人企業의 賣出額對比 準租稅負擔水準이 0.35% (1977年)로 우리나라 企業과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음.
- 한편 勞務費 對比 準租稅負擔率은 15.7%로 나타났으며, 만일 企業이 非自發的으로 負擔하는 準租稅部分 (41.8%)을 勞務費로 轉用한다면 賃金은 약 6.6% 引上시킬 수 있는 財源이 마련될 것임 (表-7).

<表-6>

標本企業全體의 準租稅負擔水準

(單位：%)

年 度	區 分	狹 義 的 公 課 金	寄 附 金 性 公 課 金	準 租 稅
1980	賣 出 額 對 比	0.37	0.11	0.48
	附 加 價 值 對 比	1.81	0.56	2.37
1981	賣 出 額 對 比	0.40	0.15	0.55
	附 加 價 值 對 比	1.99	0.76	2.75
1982	賣 出 額 對 比	0.51	0.16	0.66
	附 加 價 值 對 比	2.54	0.82	3.36
1984	賣 出 額 對 比	0.60	0.24	0.85
	附 加 價 值 對 比	2.63	1.06	3.70
1985	賣 出 額 對 比	0.61	0.16	0.77
	附 加 價 值 對 比	2.71	0.71	3.42
1986	賣 出 額 對 比	-	-	1.08

資料：韓國經濟研究院

<表-7>

準租稅의 勞務費 對比

(單位：%)

	準租稅 勞務費	非自發的 準租稅	非自發的 準租稅 勞務費
1987.8	15.72	41.8	6.57

註：118個 製造業體 實態調查資料

- 準租稅 가운데 企業活動에 반드시 수반되는 公課金を 除外한 모든 寄附金과 誠金(寄附金性 準租稅)에 대해서는 企業參與方式을 止揚하고 家計 및 個人參與方式으로 轉換하여야 함.
  - 企業은 所得과 富의 最終 歸着地가 아니고 이를 創造·分配하는 中間過程이므로 각종 寄附金性 準租稅를 企業資金으로써 負擔한다면 그 費用은 直接·間接으로 消費者·勤勞者 등 國民에 轉嫁될 것이므로 所得分配에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寄附金과 誠金은 企業次元이 아니라 富와 所得의 最終 歸着者인 家計 및 個人次元에서 負擔能力에 따라 自發的으로 參與토록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準租稅 가운데 汎國民的 公共的 性格을 띤 誠金(防衛誠金, 새마을誠金 등)은 政府財政負擔으로 轉換하고 이를 租稅收入으로 充當함으로써 資金管理 및 運用의 效率性을 提高시키고 租稅法律主義를 確立해야 할 것임.
  - 狹義의 公課金에 대하여서도 強制性을 띤 各種 會費 및 負擔金을 全面的으로 再檢討, 縮小시킴으로써 非自發的 準租稅를 줄이고 企業의 自律的 意思決定을 尊重하여야 할 것임.
- 이번 準租稅調查 結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企業이 줄이기를 바라는 非自發的 準租稅負擔이 準租稅의 42%에 이르는 것은 注目할 만한 사실임.

#### Ⅳ. 現行金利政策의 再檢討

##### 1. 金利·物價·成長間의 關係

- 우리나라의 인플레이나 經濟成長은 供給側面인 費用要因에 의하여 크게 影響을 받아온 것으로 分析됨. 즉 金利와 經濟成長間에 負의 相關關係가 있고 金利와 物價間에 正의 相關關係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物價와 實質成長間에 負의 相關關係를 發見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와 低成長으로 特徵지어지는 stagflation 現象의 存在를 나타내고 있음.

<表-8> 相 關 係 數 表

(1972.1/4~1986.4/4)

	金 利	R G N P	G D E F	W P I
金 利	1.00			
R G N P	-0.42	1.00		
G D E F	0.78	-0.28	1.00	
W P I	0.73	-0.49	0.89	1.00

註) 金 利 : 1年滿期定期預金 金利

R G N P : 非農林漁業 實質GNP增加率

G D E F : GNP defl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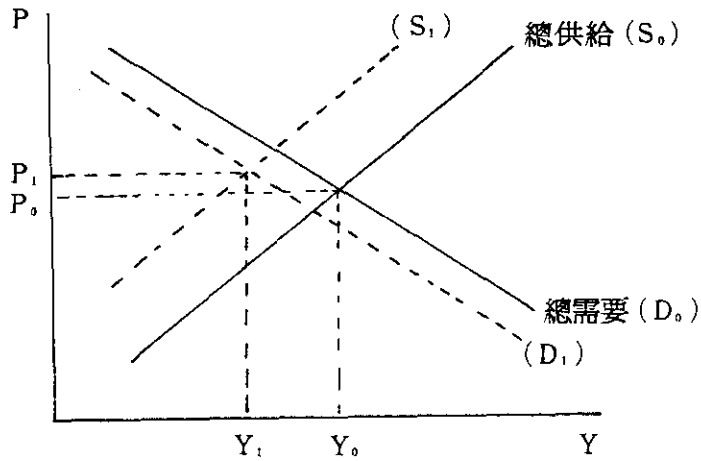
W P I : 都賣物價指數

- 「피셔」效果에 의해서 名目金利의 變化가 物價를 충분히 反映하여 결정된다면 名目金利와 物價間에는 높은 正의 相關關係를 가질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急激한 物價變動에도 불구하고 金利變動은 대단히 硬直的이었고 그 結果 公金利에 物價變動이 適切하게 反映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은 金利와 物價의 因果關係에 있어서 物價→金利보다는 金利變動→物價變動의 關係가 더욱 강하게 作用한 것으로 해석됨.

例) 1972 年부터~1981 年까지 負의 實質金利

1972 年부터~1983 年 11 年동안 公金利變動은 4 회에 불과했으며 84 年부터 現在까지 公金利의 變動이 없는 실정임.

- <表-8>에서와 같이 金利의 變動이 인플레이에는 正의 關係를 갖고 經濟成長에는 負의 關係를 갖는다는 것은 金利上昇에 따른 金融費用의 增加가 總生産(혹은 總供給)의 減少를 招來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즉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金利上昇이 消費의 減少(貯蓄增加)와 投資의 減少에 따른 總需要의 減少보다 金融費用上昇으로 總供給을 더욱 크게 縮小시켜서 物價上昇과 所得減少를 招來할 수 있는 可能性을 나타내고 있음.



- 위의 分析結果에 따르면 적정한 金利引下는 總需要의 增加보다는 總生産의 增加效果를 더욱 크게하여 物價下落과 經濟成長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음. 設령 金利引下에 따라 企業의 資金需要가 增加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總通貨增加率 目標를 設定하여 市中의 資金事情에 關係없이 硬直的으로 運用하고 있기 때문에 資金需要의 變化에 따라 通貨量이 伸縮的으로 움직일 수 없는 狀況임을 考慮해야 함.

## 2. 賃金引上和 金融費用負擔의 緩和

- 巨視經濟側面에서 金利·賃金·物價·換率은 主要한 價格變數로서 서로 密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金利政策과 賃金政策을 완전히 分離하여 수행할 수는 없음. 또한 金利水準과 賃金水準은 物價의 費用要因으로서 가장 主要한 要因이며 동시에 資本對 勞動의 대가로서 要素所得의 公平配分이라는 側面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것임. 따라서 賃金政策과 金利政策은 所得分配의 長期的 改善에 寄與할 수 있는 方向에서 相互調和를 이루도록 運用되어야 할 것임.
- 賃金政策을 金利政策과 連繫시킬 때 賃金引上時마다 金利를 引下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主張은 金利水準과 賃金水準의 決定要因을 완전 무시하고 단순히 두 變數를 連동시키는 경우에만 妥當한 主張임. 賃金水準은 인플레中立的 水準이어야 하고 企業들의 支拂能力·勞動生産性 및 生計費 水準이 충분히 감안되어 결정되며, 金利水準은 企業의 投資收益이나 혹은 資金의 需要·供給을 일치시키는 水準에서 결정되는 것임. 企業의 勞動生産性 增加나 支拂能力의 增加는 金利引下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賃金を 引上시킬 수 있게 됨. 다만 現實적으로 우리나라의 實質金利水準이 先進國에 비해서 2倍以上 높고 企業의 財務構造가 脆弱한 狀態에서 最近의 賃金引上쇼크를 生産性的 增加나 經營合理化에 의해서 吸收한다는 것이 短期間에 不可能하기 때문에 다른 生産費用의 側面에서 유일하고 效果的인 政策手段은 金利引下에 의한 金融費用을 節減시켜서 賃金引上쇼크를 緩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임.



- 最近 勞使紛糾에 따라서 追加的인 賃金引上은 불가피한 狀況임. 問題는 企業이 賃金引上分을 價格에 전가시키지 않고도 吸收할 수 있을 만큼 財務構造가 튼튼하지 못하다는데 있음. 따라서 今年 後半期 및 來年の 工產品價格 인플레이要因을 緩和시키기 위한 物價對策으로서도 金利引下는 즉각 단행되어야 할 것임.

### 3. 金利와 所得配分

- 一國의 所得分配不平等度를 나타내는 「지니」係數는 그 所得의 發生源泉에 따라 勤勞所得「지니」係數와 財産所得「지니」係數로 나누어 볼 수 있음.

$$G_v = \phi_w G_w + \phi_\pi G_\pi \quad (\text{단, } \phi_w + \phi_\pi = 1)$$

$G_v$  : 1國 全體의 「지니」係數

$G_w$  : 勤勞所得「지니」係數

$G_\pi$  : 財産所得「지니」係數

$\phi_w$  : 勤勞所得分配率

$\phi_\pi$  : 財産所得分配率

- 一般的으로 勤勞所得보다는 財産所得의 不平等度가 심함 ( $G_w < G_\pi$ ). 臺灣(1976年)의 경우  $G_w$ 는 0.2675이고,  $G_\pi$ 는 0.4072이며, 1985年 韓國銀行에서 實施한 家計貯蓄調査를 基礎로 試算한 우리나라의 勤勞所得 및 財産所得의 「지니」係數는 각각 0.2842와 0.3432로서 우리나라에서도 勤勞所得보다 財産所得의 不平等度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全般的인 分配構造改善을 위해서는 賃金隔差解消 등  $G_w$  및  $G_\pi$ 를 直接的으로 낮추는 政策과 함께 總所得中 財産所得의 比重을 낮추고 勤勞所得의 比重( $\phi_w$ )을 높여나가는 政策이 必要함.
- 財産所得의 比重을 낮추기 위해서는 金利水準의 下向調整이 필요함. 金利의 下向調整은 利子所得뿐 아니라 企業利潤率·賃貸料 등 모든 財産所得을 낮추는 作用을 할 것임. 따라서 金利引下는 所得分配에 있어 財産所得 比重을 낮추어 分配不平等度를 輕減시키는 作用을 할 것임.

<表 - 9 >

勤勞所得分配率 比較

(單位：%)

年度 \ 國別	韓 國	臺 灣	日 本
1978	46.8	59.1	66.6
1979	49.1	60.0	67.0
1980	52.4	60.4	67.2
1981	52.1	62.5	68.6
1982	53.9	63.1	69.0
1983	55.5	61.9	69.9
1984	54.9	61.6	69.6
1985	54.8	-	-

註) 勤勞所得分配率 =  $\frac{\text{被傭者報酬}}{\text{要素費用國民所得}}$

## V. 結論：對應政策課題

### 1. 企業經營

- 短期的對策
  - 人事·勞務管理의 效率性을 높여 勞務費를 절약하고 勞動生産性을 높임.
  - 接待費·廣告費·寄附金·誠金 등 生産性이 낮은 一般管理費를 줄여 經營의 效率性和 健全性을 提高함.
- 長期的 課題
  - 生産職 勤勞者에 대한 教育·技術訓練을 강화하여 勤勞者의 技術熟練度와 勞動生産性을 提高함.
  - 生産設備의 改替 및 擴充, 生産自動化 등으로 勞動投入費用을 節減하고 勞動生産性을 높여 앞으로 다가올 高賃金時代에 對備함.
  - R & D投資를 증대하여 技術의 導入과 應用, 새로운 發明에 力點을 두어 生産構造를 高賃金·高技術·高附加價值 형태로 轉向함.

### 2. 政府政策

- 金利를 2%포인트 引下調整하여 企業의 賃金支拂能力을 造成하고, 長期的으로 金利를 日本·臺灣 등 競爭國 水準(5~6%)으로 낮추어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을 높여주는 한편 所得分配를 改善하여야 함.

金利引下는 우리 經濟가 高賃金 - 高技術 - 高附加價値의 先進 經濟型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필수적 要因임.

- 各種 準租稅負擔에 있어 強制性은 일체 排除해야 하고 納付者의 自發的 意思에 맡겨져야 하며 社會政策的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自發的 寄附金·誠金은 企業負擔方式을 止揚하고 家計·個人 參與方式으로 轉換해야 함.
- 公共性 및 汎國民性을 띤 誠金과 의연금 등은 公共財政負擔으로 轉換하고 이를 公式的 租稅收入으로 充當해야 함.
- 만일 公金利를 2% 포인트 引下調整하여 企業의 金融費用을 줄이고 이에 맞추어 企業利潤率도 비례하여 下向調整하는 한편 企業의 準租稅負擔 가운데 強制性을 띤 非自發的인 部分을 除去시킨다면 製造業 平均으로 보아 賃金を 上半期 引上分 9.2%에 더하여 10%정도 추가인상 시킬 수 있는 支拂能力을 造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長期政策課題로서는 企業이 高技術 - 高附加價値型으로 生産構造를 高度化하고, 나아가서는 産業構造 調整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設備投資와 技術投資를 擴充하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金融供給을 원활히 하고 資金코스트를 낮추어야 할 것임.